

#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

崔 達 鉉\*  
邊 宇 烈\*\*

## 目 次

- |                  |                       |
|------------------|-----------------------|
| I. 緒 論           | III. 結果解釋 및 考察        |
| 1. 研究의 目的        | 1. 登錄                 |
| 2. 研究의 方法        | 2. 分類                 |
| 3. 研究의 限界        | 3. 目錄 또는 索引           |
| 4. 先行研究 概要       | 4. 配列                 |
| II. 學位論文의 意義와 特性 | 5. 利用                 |
| 1. 意義            | 6. 學位論文 整理와 利用에 대한 意見 |
| 2. 特性            | IV. 要約 및 結論           |

## I. 緒 論

### 1. 研究의 目的

學位論文은 圖書館 특히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는 主要한 學術情報 資料이지만 많은 圖書館들이 이의 收集, 整理 및 利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에서 起來된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學位論文의 量이 急增하고 있다.

1970年代에 접어 들면서 부터 高等教育의 人口가 量的으로 增加하였고, 그 內容 또한 大學教育에서 大學院中心 教育으로 轉換되어 가는 傾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 慶北大學校 圖書館

## 2 도서관학논집

향을 나타 내고 있다. 즉 1970年 大學院學生 總數는 6,640名이던 것이 1980年에는 33,939名, 1985年에는 68,178名<sup>1)</sup>으로 15年 동안에 約 10.3倍의 增加를 보였고, 특히 1970年代 末期부터 急激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곧 學科 및 專攻의 細分化, 多樣化 그리고 學位論文의 量産을 同時에 가져 오게 하였고, 이렇게 量産된 學位論文은 一時에 發行되므로 圖書館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利用시키는데 많은 人力과 時間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效率的인 對應策의 수립이 必要하게 되었다.

둘째, 學位論文은 細分化된 專門主題를 다루고 있다. 學位論文은 一般的으로 專門主題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複合主題의 것이 많기 때문에 보다 細密한 分類를 要求하고 있고 따라서 一般圖書보다 까다롭고 時間 및 人力 等の 소모가 크고 圖書整理上 어려운 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學位論文은 寄贈資料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學位論文은 學位를 取得할 目的으로 限定된 部數만을 作成하여 該當大學院에 提出하는 것이므로 극히 制限된 圖書館에서만 寄贈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었으나 最近 學位論文이 急增하여 寄贈資料의 主宗을 이루고 있어 各 圖書館에서는 이들의 원활한 整理問題가 難題로 대두되었고, 入手된 論文들은 未整理 狀態로 積滯되어 圖書館이 資料의 迅速한 整理로 利用者에게 適時에 提供하여야만 하는 大原則에 어긋나고 있어 迅速한 整理와 閱覽을 가능케 하는 對策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圖書館 現場에서는 위와 같은 問題點 뿐만 아니라 學位論文 自體의 性格에 대한 理解나 검토없이 整理를 과거대로 답습하거나 간략한 整理方法을 擇하는 등 試行錯誤를 거듭하고 있지만 뚜렷한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

1) 문교통계연보, 1965-1985 參照.

있는 實情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本 研究은 學位論文의 登錄, 分類, 目錄 또는 索引, 利用 等 全般的인 問題點을 調査하고 分析하여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研究의 方法

### 1) 道具

本 研究을 위한 資料의 蒐集方法은 質問紙法을 使用하였는데, 質問紙는 全體問項數가 31個로 登錄 4問項, 分類 6問項, 目錄 또는 索引 11問項, 配列 4問項, 利用 4問項, 其他 1問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 2) 調査對象, 時期 및 回收率

學位論文 整理와 利用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比較的 많은 學位論文을 收集함으로써 여러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豫想되는 44個 綜合大學校 圖書館을 對象으로 1985年 9月 3日에서 10月 12日에 걸쳐 郵便으로 質問紙를 配付하여 한차례 독촉을 한 結果 40個校 圖書館에서 應答하여 왔으며 回收率은 91%로 나타났는데 이들 質問紙 全部를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 3. 研究의 限界

本 研究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①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관한 實態를 보다 廣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調査對象 範圍를 單科大學과 專門大學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하겠으나 規模가 작은 圖書館의 境遇는 많은 學位論文을 收集, 整理하고 있지 않아 問題點을 提示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本 研究에서는 이들을 除外시키고 44個 綜合大學校만으로 局限하였다.

② 學位論文에 대한 모든 側面 즉 收集, 整理, 利用, 書誌統整 等 모

#### 4 도서관학논집

은 分野를 다루지 않고 整理와 利用만으로 限定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學位論文은 學士, 碩士 및 博士學位論文이 있으나 그 중 學士學位論文은 모든 學士學位 取得에 다 要求되는 것은 아니며<sup>2)</sup> 또한 質的 水準으로 보아 研究資料로 크게 利用도 되지 않으므로 對象에서 除外하고 우리나라 大學(校)에서 나온 碩·博士學位論文으로 限定하였다.

#### 4. 先行研究 概要

##### 1) 國外

外國의 研究動向을 重要的 것들만 골라서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69年 Ash<sup>3)</sup>는 學位論文의 交換에 대한 論文을 發表하였고,

1977年 Patterson 等은<sup>4)</sup> 90個의 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學位論文의 製本, 目錄, 分類, 保管 等に 關하여 質問紙 方法을 통하여 實態를 調査하였으며,

1978年 寺村由比子<sup>5)</sup>는 學位論文의 二次資料에 대한 論文을 發表하였으며,

1985年 Harris와 Huffman<sup>6)</sup>은 美國의 92個 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學位論文의 分類番號, 主題名標目 等 編目에 關한 實態를 調査하였다.

---

2) 教育法 施行令, 第120條의 2 第1項 參照.

3) Joan Ash, "The Exchange of Academic Disser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0, No.3 (May 1969), pp.237-241.

4) Kelly Patterson, et al., "Theses Handling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1, No.3 (Summer 1977), pp.274-285.

5) 寺村由比子, "學位論文의 二次資料," ドクメンテーションケンキュウ, Vol.28, No.12 (1978.12), pp.599-608.

6) George Harris, Robert Huffman, "Cataloging of Theses: a Surve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5, No.4 (Summer 1985), pp.1-15.

2) 國內

國內에서는學位論文에 대한 研究가 比較的 最近에 와서 이루어 지기 始作하였는데 그 動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72年 朴熙永<sup>7)</sup>은學位論文의 目錄法을 다루었으며,

1981年 金萬碩<sup>8)</sup>은 서울시內 15個 綜合大學校 圖書館을 對象으로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대하여 概括的인 實態를 調査하였고,

1984年 趙浩一<sup>9)</sup>은學位論文의 受入, 登錄, 分類 및 編目, 利用 等에 關하여 全國 97個 4年制 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實態를 調査하였다.

1984年 尹炳泰<sup>10)</sup>는學位論文의 特性, 收書, 整理, 保存, 運營 等에 대하여 包括的으로 다루었으며,

1984年 尹相基<sup>11)</sup>는學位論文의 書誌活動에 대한 研究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研究는學位論文에 대하여 包括的이고 概括的으로만 다루고 있으므로 圖書館現場에서 問題의 초점이 되고 있는 整理와 利用에 關한 細部事項만을 對象으로 實態를 調査하여 分析해 보고자 한다.

II. 學位論文의 意義와 特性

1. 意義

學位論文의 意義를 살펴보기에 앞서學位에 대한 定義를 보면 “어떠

7) 朴熙永, “「學位請求論文」目錄法小考,” 도서관, Vol.27, No.11 (1972.11), pp.14-15.

8) 金萬碩, “碩·博士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시內 15個 綜合大學校 圖書館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 Vol.22, No.5 (1981. 9. 10), pp.11-16.

9) 趙浩一, “學位論文 資料의 整理를 위한 調査研究,” 啓明研究論叢, 第2輯 (1984), pp.45-67.

10) 尹炳泰, “大學圖書館 情報源으로서의 學位論文,”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輯 (1984), pp.1-20.

11) 尹相基, “韓國에 있어서學位論文의 書誌活動?”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大邱: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1984), pp.211-249.

## 6 도서관학논집

한 부분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방면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맞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법률로 정하는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수여하는 칭호”로서<sup>12)</sup> 學位의 種類는 學士, 碩士, 博士, 名譽博士의 4 種類로<sup>13)</sup> 區分하고 있다. 學位의 種類나 名稱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日本은 우리나라의 碩士에 해당하는 修士와 博士의 두가지로 되어 있으며, 美國은 學士 (Bachelor), 碩士 (Master), 博士 (Doctor) 의 세가지로서<sup>14)</sup> 이 가운데 博士는 Doctor of Philosophy (ph.D) 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고, Doctor of Education, Doctor of Science 와 같은 研究學位 (Academic degree) 외에도 專門學位 (Professional degree)인 Doctor of Medicine 등 여러가지 學位가 있다. <sup>15)</sup>

英國의 境遇는 美國과 마찬가지로 學士, 碩士, 博士의 세가지 學位가 있기는 하나 Doctor of philosophy가 반드시 最高의 學位는 아니며 이보다 높은 Doctor (一名 Superior Doctorate) 가 별도로 있다<sup>16)</sup> 고 한다.

그리고 獨逸의 境遇는 Diplom (得業士) 과 Doktor (博士) 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sup>17)</sup>

한편 學位論文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학위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학술논문”<sup>18)</sup> 으로서 英語로는 dissertation 또는 thesis 로 表記되는데 이들 單語의 使用에는 意味上 약간의 問題가 있는 것 같

12) 한국어사전 편찬회,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1980), p.1770.

13) 教育法 施行令, 第122條 參照.

14) 寺村由比子, 前掲論文, p.599.

15) 尹炳泰, 前掲論文, p.2.

16) 上掲論文, 同面 (寺村由比子, “外國の博士論文と その利用” ひびろす, 第22卷, 第12號 (1971. 12), pp.9-17에서 再引用).

17) 寺村由比子, “學位論文の二次資料” 前掲論文, p.599.

18) 한국어사전 편찬회, 前掲書, p.1770.

다. 申肅媛·李淳子是 “보편적으로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이라고 하므로 thesis는 碩士學位論문을 dissertation은 博士學位論문을 意味하지만 엄격한 區別이 없이 혼용된다.”<sup>19)</sup> 고 하였고 KCR3 1. 6. 3. 13 (學位論文에 관한 주기)<sup>20)</sup> 과 AACR2 2·7B13 (주기)에서<sup>21)</sup> 보면 Thesis (ph·D), Thesis (MA), Thesis (doctoral)이라고 表記하고 있어學位論文全體를 thesis로 보고 있으나, 一般의으로 dissertation은 博士學位論문을, thesis는 碩士學位論문을 指稱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 2. 特性

學位論文의 特性을 다른 圖書館資料와 比較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①學位論文은學位 請求를 위하여 提出하는 未公刊의 學術 報告書이다. 따라서 發賣 또는 配布를 目的으로 한 出版이 아니므로 公刊의 資料와는 엄격히 區別이 되어야 한다.<sup>22)</sup> 그렇지만 教育法施行令에 “論문을 提出하여 博士學位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以内に 그 論문을 公表하여야 한다.”<sup>23)</sup> 라고 規定하고 있어 전혀 公刊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碩士學位論文은 公刊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主題의 특수성, 論文의 面數, 市場性 等の 原因으로 公刊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②學位論文은 主題範圍가 너무 좁고 取扱上 너무 깊게 다루고 있다.<sup>24)</sup>

19) 申肅媛, 李淳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全訂增補版 (서울: 産學社, 1982), p.122.

2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記述·標目 올림指示篇, 3版 (서울: 同協會, 1983), p.80.

21)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ALA, 1978), pp.73-74.

22) 趙浩一, 前揭論文, p.48.

23) 教育法 施行令, 第136條 參照.

24) Donald Edward Davinson, Bibliographic Control (London:Clive Bingley, 1975), p.76.

## 8 도서관학논집

따라서學位論文은 보다 細密한 分類를 要求하고 있어 一般單行本보다 정리가 가다름고 時間的으로나 人的으로나 많은 努力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資料 整理上 迅速성과 원활한 利用을 期하기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고 하겠다.

③學位論文은 面數가 均等하지 못하다. 특히 自然科學系列이나 技術科學系列의學位論文을 보면 面數가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Unesco 基準에서 “앞뒤의 表紙를 除外하고 5내지 48面의 不定期 刊行物”<sup>25)</sup>을 pamphlet으로 處理하도록 勸告하고 있는데, 이 基準을 따를 境遇 pamphlet으로 取扱하여야 할 境遇가 많이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 基準에 全的으로 따를 수는 없지만 面數가 아주 적은學位論文을 一般單行本과 같이 處理한다는 것도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④學位論文은 製本狀態가 不完全하다. 특히 碩士學位論文은 表紙가 貧弱하다. 冊에 있어서 表紙를 重要視하는 理由는 冊의 本文을 保護함으로써 冊으로서 오래도록 保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sup>26)</sup>

一部分의 大學院에서學位論文의 製本을 洋製本으로 하여 堅固한 表紙를 使用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大部分은 弱한 糊付裝으로 되어 있어 圖書館에서 資料의 閱覽 및 管理上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現在 大部分의 圖書館에서學位論文을 個別的으로 再製本 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라 하겠다.

⑤資料組織的인 側面에서學位論文은 目錄記述形式, 作成카드의 種類 등에서 簡略化가 可能하다는 點이다.<sup>27)</sup> 圖書館의 目錄은 慣習적으로 그리고 實際의 狀況속에서 利用者들의 要求나 作用, 行爲 등이 계속

---

25) Leonard Montague Harrod,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4th rev. ed. (London: Andre Deutsch, 1977), p. 572.

26) 韓國出版學會, 出版實務便覽 (서울: 景仁文化社, 1976), p. 29.

27) 趙浩一, 前揭論文, p. 50.

反映되면서 發展하여 온 것이 사실이나, 28) 目錄規則들이 漸次 複雜해 지고, 또한 여러가지 理論의 側面이 發達함에 따라서 利用者의 行動樣式보다는 오히려 規則을 위한 規則 혹은 理論에만 根據한 目錄編成의 傾向도 때로는 없지 않았다. 29) 學位論文의 경우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아직까지도 正確한 利用度 調査나, 利用者들의 接近 및 檢索行態에 크게 關心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좀더 經濟的이며 效果的인 정리 및 이용 方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資料組織能力에 고충을 겪고 있음으로써 學位論文을 一般單行本과 같은 資料組織方法에 不合理하게 適用시켜 人力과 時間을 浪費할 것이 아니라 經濟的이고 效率的인 方法을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⑥ 學位論文은 發行部數가 限定되어 있으며 거의 同時에 發行되고 있다. 學位論文의 發行部數는 個別的으로는 小量이기는 하나 한꺼번에 發行되어 일시에 寄贈資料로 配布되어 洪水를 이루기 때문에 情報를 利用者에게 迅速하게 提供하기 위해서는 迅速한 引受와 整理 및 閱覽을 가 능케 하는 對應策이 必要할 것이다.

### Ⅲ. 結果解釋 및 考察

#### 1. 登錄

##### 1) 登錄與否와 登錄原簿

學位論文의 登錄與否를 살펴 보면 <表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8) 노옥순, “도서관목록의 이용에 관한 연구와 목록의 내용,” 圖書館學, 第7輯 (1980), p.85.

29) 上揭論文, 同面.

10 도서관학논집

表 1. 學位論文 登錄與否

등 록 여 부	석 사 학 위 논문		박 사 학 위 논문	
	응답수	%	응답수	%
개별등록한다.	30	75.0	33	82.5
합철 제본후 등록한다	5	12.5	2	5.0
등록하지 않는다	5	12.5	5	12.5
합 계	40	100	40	100

그리고, 登錄原簿는 어떠한 것을 使用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보면 <表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2. 學位論文 登錄原簿

등 록 원 부	석 사 학 위 논문		박 사 학 위 논문	
	응답수	%	응답수	%
일반도서와 같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20	57.1	21	60.0
별도의 학위논문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15	42.9	14	40.0
합 계	35	100	35	100

<表1>과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學位論문을 登錄하는 圖書館은 碩·博士學位論文 공히 87.5%이며 登錄을 하지 않고 있는 圖書館은 12.5%이다. 登錄하고 있는 圖書館의 境遇, 一般圖書와 같은 登錄原簿를 使用하는 圖書館은 碩士學位論文은 20個館 (57.1%), 博士學位論文은 21個館 (60%)이며, 學位論文 登錄原簿를 別途로 만들어 登錄하고 있는 圖書館은 碩士學位論文은 15個館 (42.9%), 博士學位論文은 14個

館(40%)이다. 한편, 自校의學位論文은 甲種登錄原簿에 登錄하고 他校의學位論文은 乙種登錄原簿에 登錄하고 있는 圖書館도 있었다.

學位論文은 前述하였듯이 資料의 性格上 一般單行本과 같이 取扱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學位論文의 登錄은 原簿을 別途로 마련하여 閉架式의 境遇에는 個別로 登錄하고 開架式의 境遇에는 管理上 定期刊行物과 같이 製本後 登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製本

學位論文의 製本은 書架와 資料管理 運營上의 理由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形態로든지 製本을 하고 있는 圖書館은 9個館(22.5%)으로 나타나고 있다.

學位論文을 製本後 登錄하는 境遇 細分程度와 年度單位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製本의 細分程度는 4個館이 全館製本, 2個館은 大學(校), 大學院 學科別까지 細分하여 製本하고 있고, 3個館은 大學(校) 大學院 學科別 專攻別까지 細分하여 製本하고 있다. 製本의 年度單位는 全館製本이 4個館, 1年分 單位로 製本하는 圖書館이 2個館, 年度에 關係없이 製本두께로 製本하는 圖書館이 3個館이다.

學位論文의 製本은學位論文이 最近 量的으로 急激히 增加하고 있고 寄贈資料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實情이므로 全館으로 製本하는 것은 엄청난 製本費를 要求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方法으로 사료되며, 製本의 細分程度는 大學(校) 大學院 學科別 專攻別까지 細分한다면 每年 發行되는學位論文의 數가 1~2卷에 지나지 않는 境遇가 많으므로 大學(校) 大學院 學科別까지 細分하여 製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지며, 製本의 年度單位는 가능한 한 1年分 單位로 製本하는 것이 좋겠으나, 年度에 關係없이 適切한 製本두께로 製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學位論文을 製本하는 境遇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利用者가 資料를 利用하는데 不便을 갖지 않도록 製本時期의 適切한 選擇과 迅速한 整理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 2. 分類

- 1) 別置與否와 別置記號  
 學位論文의 別置與否와 別置記號를 살펴 보면 <表 3>과 <表 4>의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3. 學位論文 別置與否

별 치 여 부	응 답 수	%
석사학위논문만 별치한다	3	7.5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별치한다	35	87.5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별치하지 않는다	2	5.0
합	40	100

表 4. 學位論文 別置記號

별치기호 구분	박	박사	석	석사	학	D	G	M	M D	P	P-1 (D)	P-1 (M)	R	T	TD	TM	없음	합계
석사학위논문		1 (2.6)	2 (5.3)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4 (10.5)	1 (2.6)	8 (21.2)	14 (37.0)	38 (100)
박사학위논문	1 (2.6)	2 (5.3)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1 (2.6)	3 (7.5)	9 (23.8)		16 (42.2)	38 (100)

學位論文의 別置與否는 <表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87.5 %인 35 個館이 碩·博士學位論文을 모두 別置하고 있으며, 3 個館은 碩士學位論文만 別置하고 博士學位論文은 一般單行本과 同一하게 取扱하고 있는가 하면, 2 個館은 碩·博士學位論文 모두 別置하지 않고 있었다. 學位論文은 前述한 바와 같이 資料의 性格上 一般單行本과 區別되어야 하므로 別置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한편 別置記號는 <表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碩士學位論文의 境遇 TM이 8 個館 T가 4 個館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博士學位論文의 境遇는 TD가 9 個館, T가 3 個館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別置記號를 使用하지 않는 圖書館이 의외에도 碩士學位論文의 境遇 14 個館, 博士學位論文의 境遇 16 個館이나 되고 있는 바 學位論文을 別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마땅히 別置記號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分類와 分類表

學位論文의 分類與否는 <表 5> 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5. 學位論文 分類與否

분 류 여 부	응답수	%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분류한다	34	85.0
박사학위논문만 분류한다	1	2.5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분류하지 않는다	4	10.0
무응답	1	2.5
합 계	40	100

碩·博士學位論文 모두를 分類하고 있는 圖書館은 34 個館으로서 85 %의 圖書館은 學位論文을 分類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6. 分類表 使用與否

분 류 표 사 용 여 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응답수	%	응답수	%
일반도서와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27	79.4	29	82.9
별도로 제정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7	20.6	6	17.1
합 계	34	100	35	100

分類表의 使用은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碩·博士學位論文 共히 80% 程度가 一般圖書와 같은 分類表를 使用하고 있고 20% 程度가 學位論文 分類은 위한 分類表를 別途로 制定하여 分類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7. 分類의 細密程度

분 류 의 세 밀 정 도	응답수	%
강목까지 분류한다	4	11.4
요목까지 분류한다	17	48.6
세목까지 분류한다	13	37.1
석사는 강목까지 박사는 세목까지 분류한다.	1	2.9
합 계	35	100

學位論文 分類의 細密程度는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48.6%인 17 個館이 요목까지 分類하고 있으며, 37.1%인 13 個館은 細目까지 分類를 하고 있었다.

最近 學位論文은 그 量이 急增하고 있을 뿐 아니라 取扱하는 主題範圍가 대단히 좁으므로 利用者들이 主題에 의한 接近과 檢索이 가능하도록 細分類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3) 著者記號

學位論文 整理에 使用되는 著者記號는 <表 8> 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表 8. 學位論文 整理에 使用하는 著者記號表

저 자 기 호 표	응 답 수	%
이재철 저자기호표 제 2표	9	22.5
장일세 저자기호표	7	17.5
이재철 저자기호표 제 5표	5	12.5
연대순 기호표	2	5.0
자체제작 저자기호표	2	5.0
이재철 저자기호표 제 6표	1	2.5
이춘희 저자기호표	1	2.5
정필모 한국문헌 기호표	1	2.5
Cutter Sanborn	1	2.5
Elrod식 저자기호표	1	2.5
수입순 저자기호표	1	2.5
저자이름 전체	1	2.5
없 음	8	20.0
합 계	40	100

같이 李載喆著者記號表 第 2 表를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이 9 個館, 張一世著者記號表 7 個館, 李載喆著者記號表 第 5 表 5 個館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大部分이 學位論文 分類表를 一般圖書와 같은 分類表를 使用하고 있듯이 著者記號表도 一般圖書 整理에 使用하고 있는 著者記號表를 그대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推측된다.

3. 目錄 또는 索引

1) 目錄 또는 索引의 作成

學位論文의 登錄方式은 前述한 바와 같이 個別登錄하는 境遇, 學術雜誌처럼 製本後 登錄하는 境遇 等 多樣하여 學位論文의 編目方法도 多樣하게 一般單行本과 같이 編目하는 境遇, 製本한 學位論文은 內容分출을 하는 境遇 等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作成 與否를 살펴 보면 <表 9>와 같이 87.5%인 35 個館이 碩·博士學位論文 모두를 作成하고 있으며 3 個

表 9. 目錄 또는 索引作成 與否

작 성 여 부	응답수	%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작성한다	35	87.5
박사학위논문만 작성한다	1	2.5
석·박사학위논문 모두 작성하지 않는다.	3	7.5
무응답	1	2.5
합 계	40	100

館은 전혀 作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目錄 또는 索引을 마땅히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을 어떻게 作成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살펴 보면 <表 10>과 같다.

個別登錄하는 境遇는 <表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碩士學位論文은 80%인 24 個館이 一般圖書와 같이 編目하고 있으며, 博士學位論文은 90.9%인 30 個館이 一般圖書와 같이 編目하고 있다.

表 10. 目錄 또는 索引의 作成

문 항	등록구분		개별 등록하는 경우		제보후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 위 구 분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 논문		석사학위논문	
	응답 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일반도서와 같이 편목한다	24	80.0	30	90.9			1	20.0
별도로 색인만을 작성한다	2	6.7	1	3.0			1	20.0
목록 또는 색인을 작성하지 않는다	2	6.7	2	6.1			2	40.0
일반도서와 같이 편목하고 내용분출 카드를 작성한다					3	60.0	2	100
일반도서와 같이 편목한하고 내용분출 카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1	20.0		
일반도서와 같이 편목하고 본교의 논문만 내용분출카드를 작성한다	2	6.6			1	20.0	1	20.0
무 응 답								
합	30	100	33	100	5	100	2	100
					5	100	5	100
							1	20.0
							1	20.0

18 도서관학논집

製本後 登錄하는 境遇는 一般圖書와 같이 編目하고 製本된 論文들에 대한 內容을 分出하는 方式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普遍的인 方法이 아닌가 생각된다.

登錄을 하지 않는 境遇는 碩·博士學位論文 共히 一般圖書와 같이 編目하는 곳이 1個館, 索引만을 作成하는 곳이 1個館이며, 2個館은 登錄도 하지 않고 目錄이나 索引도 作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圖書館에 收容되어 利用시키는 學位論文은 어떠한 形態로든지 登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利用者를 위하여는 目錄 또는 索引을 반드시 作成하여야 할 것이다.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을 作成할 때 記述內容의 詳細性的 程度를 살펴 보면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5.6%인 20個館이 中間程度

表 11. 目錄 또는 索引의 詳細性的 程度

상 세 성 의 정 도	응 답 수	%
간략하게 작성한다 (3rd level)	5	13.9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작성한다 (2nd level)	20	55.6
아주 상세하게 작성한다 (1st level)	10	27.8
무 응 답	1	2.7
합 계	36	100

의 水準으로 作成하고 있으며, 10個館은 아주 詳細하게 作成하며, 簡略하게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은 5個館 이었다.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에 收錄되는 書誌情報을 詳細하게 하면 좋겠으나 學位論文에 대한 業務量이 너무 過多하고 實際 目錄의 利用研究

를 한 結果<sup>30)</sup> 書名·著者事項, 請求番號, 出版年度, 出版社 등이 가장 많이 活用되는 情報로 나타났으므로 簡略하게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2) 學位論文의 東洋書 西洋書 區分

學位論文을 東洋書와 西洋書로 區分할 境遇 어떻게 區別하고 있는가 그 實態를 살펴 보면 <表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인 20個館이 本文 言語方式을, 10個館은 出版地方式을, 3個館은 標題言語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學位論文은 大學과 學科의 傳統에 따라 本文을 外國語로 記述하고 있는 곳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普通 本文을 外國語로 記述하면 國文抄

表 12. 東洋書와 西洋書의 區分

구 분 방 식	응 답 수	%
본문언어 방식	20	50.0
표제언어 방식	3	7.5
출판지 방식	10	25.0
무 응 답	7	17.5
합 계	40	100

錄을 附加하고 本文을 國文으로 記述하면 外國文抄錄을 附加하고 있다. 學位論文은 大學(校)마다 體制가 相異하여 著者名과 書名을 表記할 境遇 本文은 外國語로 되어 있으나 著者名과 書名은 國文으로 되어 있고, 本文은 國文으로 되어 있으나 著者名과 書名은 外國語로 되어 있어 編

30) 崔達鉉,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研究”, 圖書館學論集, 第9輯(1982), pp.256-257.

20 도서관학논집

日時 상당히 고충을 겪는 境遇가 있다. 따라서 各 大學마다 體制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全國的으로 標準化된 體制가 要望된다 하겠으며, 學位 論文을 東洋書와 西洋書로 區分하는 것은 單行本의 境遇에 널리 使用되고 있는 本文言語方式을 권장하고 싶다.

3) 書名속에 包含되어 있는 로마어 處理

學位論文의 書名(論文題目) 속에는 로마어가 包含되어 있는 境遇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 著作記號를 採記하는 境遇와 書名目錄 또는 索引의 作成과 配列問題에 多數의 圖書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먼저 書名の 처음이 로마어일 境遇 著者記號를 어떻게 採記하고 있는가 살펴 보면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5%인 14 個館이 로마어 그대로 採記하고 있고, 30%인 12 個館은 우리음으로 읽어서 採記하며

表 13. 書명이 로마어로 始作할 境遇 著者記號 採記

저 자 기 호 채 기	응답수	%
로마어를 우리음으로 읽어 채기한다	12	30.0
로마어 그대로 채기한다	14	35.0
채기하지 아니한다	4	10.0
무 응 답	10	25.0
합 계	40	100

4 個館은 採記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로마어 그대로 採記하고 있는 圖書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로마어를 우리음으로 나타내기가 성가시고 어려워 그대로 채기하거나 지금까지의 整理方式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結果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하면 同一著者記號 아래 東西 두가지 文字記號 體系가 存在하게 되어 配列上 混亂만 加重하게 되므로 우리음으로 읽어 採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으로 書名속에 로마어가 포함되어 있는 境遇 어떻게 表記하고 있는가 그 實態를 살펴 보면 <表 14> 와 같다.

表 14. 書名속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어 表記

서명속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어 처리	응답수	%
있는 그대로 표기한다	27	67.5
우리음으로 읽어 표기한다	7	17.5
무응답	6	15.0
합 계	40	100

<表 1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書名속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어를 있는 그대로 表記하는 圖書館이 67.5%인 27 個館이며, 7 個館은 우리음으로 읽어 表記하고 있다. 로마어를 있는 그대로 表記하고 있는 圖書館이 많은 것은 로마어를 우리음으로 나타내기가 성가시고 어려울 뿐 아니라 整理하여야 할 學位論文의 量이 急増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書名 配列 및 檢索上 混亂을 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음으로 읽어 翻字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로마어가 書명에 포함되어 있을 境遇 配列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 보면 <表 15> 와 같다.

로마어가 書名 처음에 나오는 境遇의 配列은 50%인 20 個館이 알파벳순으로 配列하고 있으며, 8 個館은 우리음으로 읽어 가나다순으로 配列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어가 書名 中間이나 끝에 오는 境遇는 37.5%인 15 個館이 우리음으로 읽어 가나다순으로 配列하고 있으며 11 個館은 가나다순 配列이 끝나고 알파벳순으로 配列하고 있다.

表 15. 書名에 로마어가 포함되어 있는 境遇의 配列

문항	로마어의 위치부분 응답 수	로마어가 서명처 음에 나오는 경우		로마어가 서명중 간이나 끝에 오는 경우	
		응답 수	%	응답 수	%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0	50.0		
우리음으로 읽어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8	20.0	15	37.5
가나다순 다음에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11	27.5
알파벳순과 가나다순에 모두 배열 한다		1	2.5		
무응답		11	27.5	14	35.0
합	계	40	100	40	100

로마어가 書名속에 포함되어 있는 境遇 그것이 書名 처음에 나올 때와 中間에 나올 때의 配列基準이 各各 다른 것도 문제려니와 알파벳순으로 配列하거나 또는 表記는 로마자로 해둔 채 配列時에만 우리음으로 읽어서 配列하더라도 역시 配列體系의 二元化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어는 모두 한글로 翻字하여 가나다순으로 配列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書名속의 로마어를 우리음으로 읽을때 어떠한 道具를 標準으로 하고 있는가를 調査하여 본 結果는 <表 16> 과 같다.

<表 1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과 이회승의 국어대사전을 가장 많이 參考하고 있다. 그리고 自體에서 製作한 노트를 基準으로 하는 圖書館도 있고, 一般의으로 가장

表 16. 로마어를 읽는 道具

로마어를 읽는 道具	응답수	%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문교부)	5	29.4
국어대사전 (이희승)	5	29.4
한국목록규칙해설 (장일세)	2	11.8
한국어대사전 (현문사)	1	5.9
자체노트기준	1	5.9
일반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음으로 읽는다	3	17.6
합 계	17 <sup>31)</sup>	100

많이 읽혀지는 음으로 表記하고 전거카드를 作成해서 別置하여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도 있다.

外來語를 表記하는데 一定한 基準이 없이 使用되는 것 같이 여겨지며, 전거카드를 作成하는 것도 學位論文 書名에 나타나는 모든 外來語에 대하여 전거카드를 作成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라 생각된다. 利用者의 便宜를 위해서는 반드시 標準화된 道具가 適用되어야 하겠으며, 最近 文敎部에서 制定한 로마자 표기법은 그 좋은 하나의 例로 들 수 있겠다.

#### 4) 主題名 配當

學位論文을 整理하는데 있어서 主題名目錄이나 索引을 作成하는 境遇 主題名을 어떻게 配當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17>과 같이 全體 8 個館中 大項目主義와 小項目主義가 各各 3 個館, 中項目主義가 2 個館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이 숫자는 7 個館에서 應答한 것으로 1 個館에서 두개 이상의 道具를 標準으로 하고 있는 圖書館도 있었음.

24 도서관학논집

表 17. 主題名 配當

주 제 명 배 당	응 답 수	%
대항목 주의	3	37.5
중항목 주의	2	25.0
소항목 주의	3	37.5
합 계	8	100

學位論文의 量이 急增하고 있는 利用者의 要求가 細分化되며 學位論文의 性格이 아주 좁은 範圍를 깊게 다루고 있으므로 主題名도 小項目主 義로 配當하는 것이 利用者 指向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5) 目錄 또는 索引의 種類

學位論文의 利用을 위하여 어떠한 目錄이나 索引 또는 內容分出카드를 作成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18>과 같다.

表 18. 作成하고 있는 카드의 種類

작성하고 있는 카드의 종류	응답수	% <sup>32)</sup>
저자카드	35	87.5
서명카드	28	70.0
분류카드	27	67.5
주제카드	8	20.0
발행기관명 카드	1	2.5

<表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國 40個 大學校 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의 利用을 위하여 作成하고 있는 카드는 著者카드, 筆名카드, 分類카드가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學位論文은 다른 圖書館資料와 같이 主題에

32) 40個館에 대한 比率임.

의한 接近이 가장 많으리라고 예상했지만 主題카드를 作成하는 圖書館은 8 個館 뿐이었다. 하지만 分類카드로써 대신하는 圖書館이 많은데 그럴 수록 主題名에 비하여 一般性, 包括性을 가진 分類番號의 細密化가 要請된다 하겠다.

#### 4. 配列

##### 1) 學位論文의 配列

學位論文의 配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67.5%인 27 個館이 請求記號順으로 配列하고 있으며, 4

表 19. 學位論文의 配列

학 위 논 문 의 배 열	응 답 수	%
청구기호순으로 배열한다	27	67.5
대학아래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4	10.0
대학, 대학원, 학과, 년도 아래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3	7.5
대학, 년도 아래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2	5.0
학과아래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2	5.0
대학, 년도아래 주제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1	2.5
대학, 대학원, 학과아래 수입순으로 배열한다.	1	2.5
합 계	40	100

個館은 大學아래 著者名의 가나다순으로 配列하고, 3 個館은 大學, 大學院, 學科, 年度아래 著者의 가나다순으로 配列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配列은 크게 두가지 즉 請求記號順으로 配列하는 方法과 大學別로 配列하는 方法으로 大別할 수 있겠는데, 請求記號順으로 配列하는 方法은 같은 主題의 論文이 인접하게 되므로 同一主題를 같은 場所에서 閱覽할 수 있는 長點이 있고 大學別로 配列하는 方法은 레이블을 記入하지 않고도 表紙에 기재된 大學名, 大學院名, 學科名, 發行年度를 그대로 利用할 수가 있겠다.

## 2) 目錄 또는 索引의 配列

學位論文의 目錄이나 索引을 어떻게 配列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20>과 같이 63.9%인 23個館이 一般圖書카드와 別途로 學位論

表 20. 目錄 또는 索引의 配列

目錄 또는 색인의 배열	응답 수	%
일반도서카드와 같이 혼합배열한다	10	27.8
일반도서카드와 별도로 목록실에 배열한다	3	8.3
일반도서카드와 별도로 학위논문실에 배열한다	23	63.9
합 계	36	100

文室에 配列하고 있으며, 10個館은 一般圖書와 같이 混合配列하고 있고, 3個館은 一般圖書카드와 別途로 目錄室에 配列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學位論文 目錄이나 索引카드를 一般圖書와 別途로 配列할 境遇 編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면 <表 21>과 같다.

<表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目錄 또는 索引카드의 配列은 碩士와 博士를 分離하는 境遇와 統合하는 境遇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겠는

表 21. 카드配列을 一般圖書와 別途配列할 境遇의 編成

목록 또는 색인카드의 배열	응답수	%
석사·박사로 분리한후 저자, 서명, 분류카드를 각각 분리하여 배열한다	1	3.9
석사·박사로 분리한후 저자·서명과 분류로 나누어 배열한다	3	11.5
석사·박사를 통합한후 저자·서명, 분류카드를 각각 분리하여 배열한다	11	42.3
석사·박사를 통합한후 저자·서명과 분류로 나누어 배열한다	11	42.3
합 계	26	100

데, 分離하는 境遇는 全體 26個館中 15.4%인 4個館이고 統合하는 境遇는 84.6%인 22個館으로 나타났다.

學位論文은 性格上 別置를 하더라도 모든 圖書館資料를 統合하고 있는 總合目錄에는 包含되어야 할 것이며 利用 및 管理를 위하여 學位論文室에도 目錄 또는 索引을 別途로 配列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學位論文室에서의 目錄이나 索引의 配列은 利用者가 書誌事項을 알고 接近하는 境遇는 碩·博士學位論文을 分離하여 配列하는 것이 더 빨리 檢索할 수 있을 것이고, 利用者의 主題接近을 위해서는 같은 主題가 같이 모일 수 있게 하는 統合配列이 좋을 것이다. 自館의 性格과 利用慣習에 따라 編成原則을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一般的으로 統合配列이 보다 效果的이라 하겠으며, 統合配列할 境遇에는 著者と 書名을 하나로 하고 分類를 하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利用

## 1) 學位論文의 閱覽方式

學位論文의 閱覽方式은 <表 22> 와 같이 60%인 24 個館은 開架制

表 22. 閱覽方式

열람방식	응답수	%
개가제	24	60.0
폐가제	16	40.0
합계	40	100

로 閱覽시키고 있으며, 40%인 16 個館은 閉架制로 閱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學位論文 閱覽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는 書架管理를 돌 수 있겠는데學位論文을 個別登錄하여 整理하는 境遇에는 面數가 적은 論文이 相當히 많으므로 閉架式이 바람직하겠으며, 製本後 登錄하는 境遇에는 閉架式이 바람직할 것 같다.

## 2) 學位論文의 備置場所

學位論文을 어느 곳에 備置하고 있는가 그 實態를 살펴 보면 <表 23> 과 같다.

表 23. 備置場所

비치장소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응답수	%	응답수	%
학위논문실	15	37.5	15	37.5
정기간행물실	10	25.0	9	22.5
참고자료실	7	17.5	6	15.0
서고	4	10.0	6	15.0
논문집실	3	7.5	3	7.5
과제도서실	1	2.5	1	2.5
합계	40	100	40	100

碩士學位論文은 學位論文室에 備置하고 있는 圖書館이 37.5%인 15 個館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定期刊行物室 10 個館, 參考資料室 7 個館, 書庫 4 個館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博士學位論文은 碩士學位論文과 거의 비슷한 樣狀을 나타내고 있으나 書庫에 備置하고 있는 圖書館이 6 個館으로 나타나고 있어 碩士學位論文보다 博士學位論文을 單行本 取扱하는 傾向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圖書館의 構造, 入力 등을 감안하여 利用者에게 가장 便利한 곳에 備置하여야 할 것이다.

3) 記述要素의 利用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의 記述要素中 어떠한 要素를 가장 많이 利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問議한 結果는 <表 24> 와 같다.

表 24. 目錄 또는 索引 記述要素의 利用

기 술 요 소	응답수	%
저 자	30	39.0
서 명	32	41.5
출 판 년 도	11	14.3
주 기	4	5.2
면 수	0	0
삽 도	0	0
크 기	0	0
기 타	0	0
합 계	77 <sup>33)</sup>	100

33) 40 個館에서 1 個以上 應答한 것을 합한 숫자임.

〈表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目錄 또는 索引의 記述要素中 書名, 著者, 出版年度, 註記의 順으로 많이 利用하고 있다고 應答하였으며, 面數, 插圖, 크기 등은 거의 利用하지 않는다고 應答하였다. 따라서 記述의 內容도 簡略하게 하여 利用의 便利와 아울러 時間과 人力의 節約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 4) 目錄 또는 索引카드의 利用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카드中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利用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25〉와 같이 서명카드를 가장 많이 利用(22 個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分類카드, 著者카드, 主題카드의 順으로

表 25. 目錄 또는 索引 利用

목 록 또는 색 인	응답수	%
저 자 카 드	11	21.2
서 명 카 드	22	42.3
분 류 카 드	13	25.0
주 제 카 드	6	11.5
합 계	52 <sup>34)</sup>	100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著者の 先行研究<sup>35)</sup>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書名接近이 많으며 主題接近을 忌避하고 있다. 그러나 學位論文의 書名은 複雜하고 길어 一般單行本처럼 書名속에서 많은 主題名을 檢索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學位論文의 接近을 複雜하고 긴 書名보다는 主題接近을 할 수 있도록 分類目錄이나 主題目錄을 利用하도록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34) 40 個館에서 1 個以上 應答한 것을 합한 숫자임.

35) 崔達鉉, 前揭論文, pp.251-255.

#### 6. 學位論文 整理와 利用에 대한 意見

各 大學校 圖書館에서 陳述한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대한 意見을 類似한 것끼리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本校의 學位論文만을 完備하고 他校의 學位論文은 相互協力을 하여 複寫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件)

② 學位論文의 業務量이 過重하므로 簡略整理方法을 開發하여야 하겠다. (3件)

③ 學位論文을 위한 새로운 分類法을 模索하는 것이 좋겠다. (3件)

④ 學位論文을 一般圖書와 같은 方法으로 整理하는 것은 是正되어야 하겠다. (2件)

⑤ 小說類 보다는 學位論文이 學術的 價値가 크므로 敬시하지 말고 個別 整理하여야 하겠다. (1件)

#### IV.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全國의 44個 綜合大學校 圖書館을 對象으로 學位論文의 登錄, 分類, 目錄 또는 索引, 配列, 利用 等に 대한 實態를 調査하고 分析하여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年代 이후 高等教育 人口의 增加와 大學院 中心教育으로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學位論文이 量的으로 增加하여 大學圖書館 寄贈資料의 主宗을 이루어 왔다.

學位論文은 未刊本으로써, 主題範圍가 너무 좁고 取扱上 깊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面數가 均等하지 못하며, 製本狀態가 不完全하고, 制限된 部數로 發行되고 있지만 一時에 發行되어 나오므로 大多數의 圖書館에서 登錄, 分類, 編目, 利用 等に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다.

學位論文은 앞으로 無限定 增産될 것으로 보여 利用者에 대한 圖書館 奉仕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 반면 豫算의 減縮과 人力의 不足이 加重되고 있어 合理的인 圖書館 運營이 切實히 要求되는 實情이라 하겠다. 内容面에서나 形態面에 있어서 他 圖書館 資料와는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는 學位論文은 獨立된 類型의 圖書館 資料로 看做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付合되는 整理 및 利用方案의 講究를 謀索하여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調査 및 分析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學位論文의 登錄은 碩士學位論文은 75%, 博士學位論文은 82.5%가 個別登錄을 하고 있고, 製本後에 登錄하는 것은 碩士學位論文이 12.5%, 博士學位論文이 5%이며, 登錄을 하지 않는 境遇는 公히 12.5%로 나타났다. 또한 一般圖書와 같은 登錄原簿를 使用하는 곳이 57%와 60%로, 別途의 學位論文 登錄原簿를 使用하는 곳이 40%와 43%로 각각 나타 났다. 資料의 性格上 登錄은 別途의 原簿를 使用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閉架式의 경우에는 合綴製本後 登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碩·博士學位論文을 모두 別置하는 곳이 87.5%로 가장 많고 碩士學位論文만 別置하는 곳은 7.5%이며, 5%는 모두 別置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別置記號는 碩士學位論文의 境遇는 TM이 20%로 가장 많으며 博士學位論文은 TD가 2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學位論文의 分類는 85%가 碩·博士學位論文을 모두 分類하고 있으며, 2.5%는 博士學位論文만 分類하고, 10%는 모두 分類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 정도는 一般圖書와 같은 分類表를 使用하고 있으며 20% 정도는 別途로 制定한 分類表를 使用하고 있었다. 한편 分類의 細密程度는 48.6%가 要目程度의 中分類를 하고 있으며, 37.1%는 細目까지 細分類를 하고 있고 11.4%는 綱目까지 分類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取扱하고 있는 主題의 特殊性과 生産量

을 감안할 때 細密分類를 함이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著者記號表는 李載堉著者記號表와 張一世著者記號表를 가장 많이 使用하고 있었다.

4.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의 作成은 87.5%가 모두 作成하고 있으며, 博士學位論文만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이 2.5%, 모두 作成하지 않는 圖書館은 7.5%로 나타났다. 目錄 또는 索引의 作成方法은 一般圖書와 같이 編目하고 있는 境遇는 碩士學位論文이 80%, 博士學位論文이 90.9%이며, 別途로 索引만을 作成하는 境遇는 碩士學位論文이 6.7%, 博士學位論文이 3%이고, 目錄 또는 索引을 作成하지 않는 境遇도 碩士 6.7%, 博士 6.1%로 나타났다. 그리고 登錄을 하지 않으면서 目錄이나 索引을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도 2個館이 있었다. 한편 目錄 또는 索引의 詳細性의 程度는 55.6%가 中間程度의 水準으로 作成하고 있으며, 27.8%는 아주 詳細하게 作成하고 있고 簡略하게 作成하고 있는 곳은 13.9%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記述要素의 利用頻度, 業務量과 人力 等の 事情으로 보아 簡略하게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5. 學位論文의 東洋書·書洋書 區分은 50%가 本文言語方式을 택하고 있으며 25%는 出版地方式을, 7.5%는 標題言語方式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學位論文은 本文은 外國語로 되어있으나 著者名과 書名이 國語로 되어있거나 本文은 國語로 되어있으나 著者名과 書名이 外國語로 되어있는 境遇가 있으므로 各 大學校마다 標準化된 體制가 要望되며 區分方式도 本文言語方式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6. 書名속에 포함되어 있는 外國語의 表記는 67.5%가 外國語 그대로 表記하고 있으며, 17.5%는 우리음으로 읽어 表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外國語를 있는 그대로 表記한다면 配列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檢索에도 混亂을 더 할 뿐이라 생각되므로 우리음으로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主題名目錄이나 索引을 作成하는 境遇 主題名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大項目主義와 小項目主義가 各各 37.5%이며, 25%는 中項目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位論文은 아주 좁은 範圍의 主題를 다루고 있으므로 小項目主義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8. 學位論文에 대하여 作成하고 있는 目錄이나 索引의 種類는 著者카드가 全體 圖書館의 87.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카드 70%, 分類카드 67.5%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의외에도 주제명카드를 만드는 圖書館은 8個 圖書館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圖書館이 아직 主題名目錄을 開發하지 못하고 있는 現狀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다.

9. 學位論文의 配列은 請求記號順 配列과 大學別 配列로 兩分할 수 있겠는데 67.5%의 圖書館이 請求記號順 配列을 하고 있었다. 請求記號順 配列은 같은 主題가 같이 모이는 長點이 있겠고 大學別 配列은 레이블을 記入하지 않고도 配列할 수 있는 長點이 있기 때문에 個別登錄을 하느냐 合綴製本後에 登錄을 하느냐에 따라 配列方法을 달리 하게 될 것이다.

10. 目錄 또는 索引의 配列은 一般圖書카드와 別途로 學位論文室에 單配列하는 境遇가 63.9%로 가장 많으며 27.8%는 目錄室에 一般圖書카드와 混合配列하고 있고 8.3%는 目錄室에서 一般圖書카드와 別途로 配列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날 目錄이 統合目錄의 추세로 發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學位論文의 目錄이나 索引도 마땅히 目錄室에 함께 配列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閱覽方式은 60%가 開架制이며 40%는 閉架制로 運營하고 있었으며, 學位論文의 備置場所는 37.5%가 學位論文室에 그 다음으로 定期刊行物室, 參考資料室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學位論文室이 獨立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12. 가장 많이 活用되는 記述要素로서는 著者, 書名, 出版年度, 註記事

項 등이 있으며 面數, 插圖, 크기 등은 거의 利用하지 않았기 때문에 目錄記述의 簡略化가 要請된다 하겠다.

13. 學位論文의 檢索을 위하여 書名으로 接近하는 境遇가 著者名과 分類보다 상당히 많아 主題接近의 忌避現狀이 나타났으나, 學位論文의 書名은 複雜하고 길며 一般單行本처럼 主題名을 많이 包含하고 있지 않으므로 主題로써 接近을 할 수 있도록 主題名目錄을 더욱 開發함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利用指導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 Organization and Use of Theses Collections in University Libraries

Choe, Dal Hyun\*

Byun, Woo Yeoul\*\*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use of theses collections in university libraries of Korea.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31 questions on 6 items was sent to 44 university libraries of which 40 libraries responded.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gures concerning registration of theses can be tabulated as follows.

Theses	Registration		Register	
	item by item (%)	after binding (%)	same with book registers (%)	separate (%)
Master's	30 (75)	5 (12.5)	20 (57)	14 (40)
Doctoral's	33 (82.5)	2 (5)	21 (60)	15 (43)

2. In differentiation of oriental and occidental theses, 20 libraries (50%) depend on the basis of the text language.

3. Thirty-four libraries (85%) classify the theses and 27 (80%) of them use the same tables with book classification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The Library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edules. For classification level, 17 libraries (48.6%) classify them in section numbers whereas 13 (37.1%) in sub-sections.

4. Catalog or index cards of theses are made in 35 libraries (87.5%) of which 20 libraries are using the second level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5. Roman alphabets in a title are described as such 27 libraries (67.5%).

6. Most of respondents are preparing author, title and classified catalog cards for users. The research reveals that only 8 libraries are giving subject headings to the theses.

7. Twenty-three libraries (63.9%) have theses catalogs in separation from their book catalogs.

8. Most helpful bibliographic elements in an entry for users are reported to be author, title, date and notes.

In general, theses collections have many different features in various aspects compared with book material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former differently with the latter.

Firstly, it would be more convenient to register theses on the different register from the book register.

Secondly, minute classification of theses would be necessary for their users.

Thirdly, text language is the common basis of discriminating oriental materials and occidental ones.

Fourthly, a simple catalog would be quite good enough to

use these collections, for most helpful elements in an entry are limited to author, title, date and notes.

Fifthly, it is strongly recommendable to transcribe all the roman alphabets on the titles into korean alphabets.

Sixthly, the research revealed that our library would needs to develop subject heading work which is for behind other library works.